

창조적 생각의 훈련

누구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은 선*

루트벤스타인, 로버트 루트벤스타인, 미셸 (2007). 『생각의 탄생』. 서울: 에코의 서재. 박종성 (역).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Jim Dator)가 경제의 주력 엔진이 '정보'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상상력과 창의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된다고 말한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전반에 문화, 창의, 창조가 주요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21세기는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다. 즉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다각도로 사고 할 수 있는 전인(全人)을 양성하자는 말이다. 전인교육이란 경험을 변형할 줄 알고 지식을 통합할 줄 아는 전인을 양성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의 교육은 기계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 지식전달의 교육이 지배적 이었고, 이는 알파고의 승리부터 사람이 기계에게 지배되는 영화 속 장면처럼 그러한 현실을 두려워하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현실의 교육은 실제와 학교지식과의 단절이 만연한 현실이다. 창의와 인성교육은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하고, 창의성은 상상력에서 시작된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소개할 「생각의 탄생」은 2007년 로버트 루트벤스타인, 미셸 루트벤스타인 저/ 박종성 옮김, 에코의 서재에서 책이다.

저자, 로커트 루트벤스타인은 미시건 주립대학 생리학과 교수이며, 맥아더 펠로우십 수상자이며, 미셸 루트벤 스타인은 역사학자로, 로버트의 부인이자 연구 동반자이다.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이 책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마르셀 뒤샹, 리처드 파인먼, 버지니아 울프, 제인 구달, 스트라빈스키, 마사 그레이엄 등 역사 속에서 뛰어난 창조성을 발휘한 사람들이 과학, 수학, 의학, 문학, 미술, 무용 등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한 13가지 발상법을 생각의 단계별로 정리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손꼽히는 천재들이 자신의 창작 경험을 통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또한 생각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객원교수, aurora32@khu.ac.kr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생각 다시 하기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는 공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즉 직관으로 느끼고 이차적으로 수학적, 과학적 틀속으로 집어넣는다. 화가 막스 빌 열시 “예술이란 인간 정신의 표현이며,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막연한 심상을 구체적인 형태로 가시화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학문분야에서 창조적 사고와 표현은 직관과 감정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현 교육과정에서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느낌과 감정과 직관의 사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상상력을 학습하는 13가지 생각도구

학교에서 모든 과목에 만점을 받는 학생이 현실에서는 이론의 적용도 할 수 없는 헛똑똑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는 환상과 실제의 단절을 의미하며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분리된 결과를 가져오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응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경험으로의 예술(Art as Experience)의 존 듀이는 예술이 ‘어떻게’ 발생하고 삶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때 라야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미국 작가이자 화가인 폴 호건은 상상할 수 없다면 창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각 분야의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생각의 도구들을 관찰, 형상화, 추상, 패턴인식, 패턴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 등 13단계로 나누어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을 갈고 닦아 창조성을 발휘하는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각도구 1 관찰: 모든 지식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오감을 활용하여, 주의 깊게 세밀하게 주목하기 그러나 관찰은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이 보는 데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찰도 훈련이 필요하다. 화가들이 해부학을 공부하고, 해부학자들이 미술을 공부했던 것처럼, 관찰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도구 2 형상화: 상상하여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통해 형상화가 이루어진다.

생각도구 3 추상화: 핵심을 찾아내는 것 추상화는 즉 단순화다. 한 가지 특징만 잡아내어 표현하는 것 피카소는 “당신들은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게 아니다. 그저 보지만 말고 생각하라! 표면적인 것 배후에 숨어있는 놀라운 속성을 찾으라! 눈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라!”라고 말하고 있다.

생각도구 4 패턴인식: 매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것... 패턴을 알아챈다는 것을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패턴을 인식하는 일과 같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우리의 패턴인식능력은 다른 공간을 학습함으로써 발달된다. 나름의 연습이 필요하다.(피즐이나 게임 또는 생소한 장소에서 익숙한 패턴찾기)

생각도구 5 패턴형성: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둘 이상의 구조적 요소나 기능적 작용을 결합하는 것이다. 단순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복잡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패턴형성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패턴은 문제에 대한 정답이 하나가 아님을 보여준다.

생각도구 6 유추: 유사성으로 인식하고 상상하는 것? 유추란 단순한 닮음과는 달리... 둘, 혹은 그 이

상의 현상들 사이에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내적 관련성을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유추는 상상력을 동반하는 생각도구이다. 이 또한 훈련이 필요하다. 모든 사물이 은유가 되는 것.. 유추와 은유로 가르치고 배우라

생각도구 7 몸으로 생각하기: 우리들은 과도하게 머리만 쓰는 경향이 있어서 몸이 먼저 일의 처리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곤 한다. 몸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육의 움직임, 자세, 균형, 접촉에 대한 우리의 감각에 의지한다. 생각하고 창조하기 위해 근육의 움직임과 긴장, 촉감 등이 불려나오는 순간이 바로 ‘몸의 상상력’이 작동하는 때다.

가드너는 그의 저서〈마음의 틀〉에서 ‘몸은 자신의 지성을 품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생각도구 8 감정이입: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다. 이는 형상화나 고유수용감각적 사고와 차별화 된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이 되어 보는 것’이다. 이 또한 훈련이 필요하다. (실제나 가상환경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때 집중되는 ‘내적 주의력’을 연습하라 / 자신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외적 주의력을 연습하라) 우리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것’이 될 때 가장 완벽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각도구 9 차원적 사고: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혹은 그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어떤 차원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변형시켜 다른 차원으로 옮겨 놓거나, 아니면 차원 내에서 어떤 물체나 과정이 차지하는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줄이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도구 10 모형만들기: 모든 모형은 해당 대상의 구조와 기능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만을 추출한 것이다. 그것들은 대부분 추상화와 유추, 차원적 변형을 구현한다.

생각도구 11 놀이: 놀이에는 분명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다. 놀이는 성패를 따지지 않으며, 결과를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화 되기 이전의 내면적이고 본능적인 느낌과 정서, 직관, 쾌락을 선사하는데. 바로 그것들로부터 창조적인 통찰이 나온다.

생각도구 12 변형: 어떤 종류의 창조적 노력이든 간에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어떤 구상이나 통찰이 다수의 생각 도구들을 거쳐 변형되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표현 매체로 변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도구 13 통합: 통합적 이해는 감각적 인상과 느낌, 지식과 기억이 다양하면서도 통합적인 방법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고, 그림을 보면서 냄새를 맡는 것처럼, synosia는 형상화, 유추, 모형만들기, 놀이, 그리고 변형의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결과다.

안무가 로이폴러는 “춤은 빛이고 색이며, 동작이고 음악이다. 또한 그것은 관찰이고 직관이며 최종적으로는 이해다”

우리들 대부분은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본다. 하지만 창조적 천재들은 그림을 ‘듣고’ 음악을 ‘본다’. 이 책의 저자는 창조적 생각이 천재성을 가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사고할 수 있으며, 창조성 빛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의 도구 13가지를 이용한다면 누구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생각을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예술교육

을 담당하는 교육가들이, 꼭 무용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무용예술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발
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무용교육가들에게 꼭 필요한 저서이다.

www.kci.go.kr